



계란시장

(단위 : 원/10개)

지역 구분 월일	서울 지역					대구		부산		전주		광주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경란	특란	대란	특란	대란	특란	대란	특란	대란
10월 2일	410	350	300	270	230	410	360	420	370	420	370	440	380
11일	390	350	300	270	230	410	360	410	360	390	330	420	360
13일	390	340	290	260	220	410	360	410	360	390	330	390	330
18일	380	330	290	260	220	400	350	400	350	390	330	390	330
24일	370	320	290	260	220	390	340	390	340	390	330	370	330
28일	370	320	290	260	220	380	330	390	340	370	330	370	330
79년 9월	359	302	262	222	182	352	302	315	370	375	321	380	325
10월	318	268	228	192	156	303	257	270	320	310	275	327	290
11월	236	192	169	142	112	246	199	200	249	244	186	254	216
12월	274	244	244	194	165	275	245	290	254	276	239	283	256
80년 1월	271	241	221	191	161	265	240	275	235	263	233	274	244
2월	340	310	288	258	228	340	316	358	329	350	320	357	327
3월	371	340	310	280	250	363	332	376	346	369	339	355	349
4월	402	357	327	297	266	388	348	403	360	401	358	411	368
5월	381	325	295	265	235	386	336	400	347	386	332		
6월	323	269	236	206	176	325	265	333	373	325	275	358	298
7월	345	290	260	230	194	343	286	353	298	356	295	372	312
8월	383	333	302	272	232	378	328	389	339	375	327	402	347
9월	418	359	310	280	240	400	350	415	365	410	369	435	380

약보합세 예상

소비부진에 따른 시세 현실화에 의한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뚜렷한 회복기미는 보이지 않고 대란의 경우 출하가 부진한 상태이다.

특란은 일반 가정소비, 중란 이하는 음식점 및 공업용으로 소모되고 있으나 대란은 가정 소비가 원활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 추수기의 노계 소비도 비교적 원활한 편이 못되었고 10월 이후 초생추 입추도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산란사료생산량 비교

(단위: 톤)

월년	1~5월평균	6월	7월	8월	9월	1~9월평균	증감(%)
77년	56,966	61,112	47,310	53,743	58,408	56,150	100(기준)
78년	69,192	74,193	68,128	71,381	76,639	62,178	111
79년	94,118	93,250	89,360	91,535	101,383	94,013	167
80년	94,631	88,534	87,611	92,516	91,628	92,604	165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계속적으로 산란계 수수가 증가 되다가 79년과 80년도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호경기가 지속 되었던 78년에 비해 80년도는 약 50% 정도 증가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78년도에 훨씬 못 미치는 소비량을 감안 한다면 불가 상승율을 염두에 두더라도 현재의 가격 수준은 생산자의 노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초에 옥수수뿐만 아니라 대두박 등의 원료가격 인상과 환율 인상 요인으로 사료 가격이 대폭 인상 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채란분야의 생산 조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생산자들의 적응을 위한 노력으로 최근 들어 대대적인 입추억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내년 중에도 국내 경기가 눈에 띄게 호전 될 전망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보면 닭 감소 운동은 적극적으로 전개 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강제 환우의 효율적 활용이 재삼 강조 되어야 할 것이다.

나가는 약보합세를 지속 하다가 김장철이 지나야 회복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란가격 월별 추세(서울지역 1979~80년) (단위: 원/10개)

